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동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묵주기도
축일
5 페이지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3 페이지

하나 된 사랑
(제2부)
9 페이지

거룩한 사랑 잡지는 년 3 회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출판됩니다. 이번 발행은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의 축일 (5월 5일), 하나 되신 성심 (6월)과 아버지 하느님 (8월)께 경의를 표하는 두 행사,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연차 총회, 등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사랑 잡지

2017년 9월 ■ 10월 ■ 11월 ■ 12월
제4권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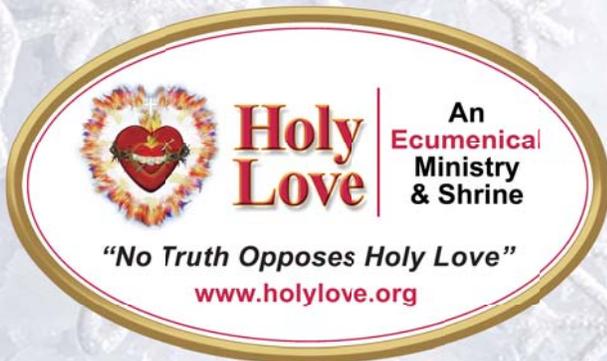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2쪽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3쪽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축일과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 5쪽
영적여정 - 마니막 제22편: 하나 된 사랑 9쪽
마라나타 성지에서의 크리스마스 12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 중앙 시설: 440-327-8006
- 선교회 팩스: 440-327-8017
- 메시지 신청: 440-327-5822
- 기도 신청: 440-327-8039
-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love.org
- 선교회 연락: mamshl@holyllove.org
-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www.holyllovekorean.com
-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축일

- 2017년 12월 12일 -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에서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과달루페 성모님으로 오시고 눈물 방울 안에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약속대로 여기 성지에 왔다. 지금은 박약한 시대다. 나라들은 핵분쟁을 추진시키고 있다. 악을 설득하는 것은 다른 방도가 아니다. 힘의 과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신중하게 성취되어야 한다.”

“대대로 악이 정권을 장악해 왔다. 이 시대가 구별되는 것은 너무 많은 마음속에 악이 비록 하느님의 분노를 확실히 청할지라도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하느님의 분노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아직도 남은 자들을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것이 없다. 내가 남은 자들과 함께 있다. 나는 그들의 하녀다.”

“오늘 나는 특별히 세상이 하느님의 계명들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를 강요한다. 이것이 이교도·무종교자들과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 대한 하느님의 지배권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너희의 복지를 위한 그분의 뜻 안에서 기뻐하여야. 아버지께서 너희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세상의 회개에 대한 나의 희망의 표시다. 오늘 너희가 여기에 오는 것은 나에게 세상의 회개를 위한 너희의 충실한 인내와 기도의 표시다. 우리 함께 감사하자. 오늘 마음속에 많은 청원들이, 어떤 것은 매우 절망적인 청원들이 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천국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의 제대 위에 놓을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강화시키고 증대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들은 신앙의 거룩한 전통을 지켜 다른 세대들에게 전할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이다. 이들은 진리의 품에서 죽을 충실한 자녀들이다.”

“이제 하느님께서 그분의 표지가 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가 되었다. 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악을 촉진하기에 열중하고 있는 자들의 계약은 드러날 것이다. 사악한 안건들의 결과들이 다가오고 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룩한 천사들 경당



하나 되신 성심 채플

오후 3시 기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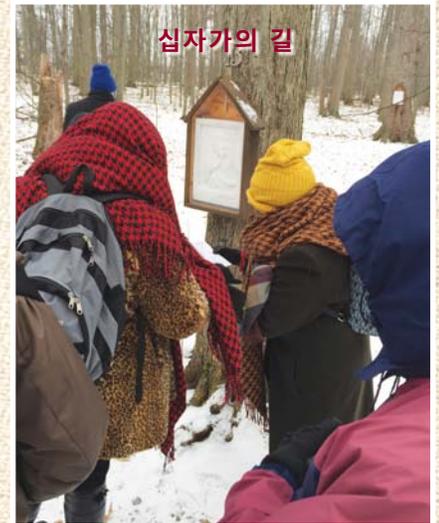


고통의 어머니 성지

과달루페의 성모님 축일 - 2017년 12월 12일 -



마라나타 샘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 성지



자정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 성지



자정 기도모임 직후의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거룩한 목주 기도 축제 일

- 2017년 10월 7일 -

‘저는 저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바치고 있는 모든 기도
에 결합하나이다.’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에서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처음에는 천사의 두 날개로 가려져 계십니다. 날개가 열리고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평화와 안전을 향한 인간의 노력을 새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진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노력은 많이 필요로 하는 이 평화를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 세상의 평화를 나의 티없는 성심에 위임하셨다. 너희는 이제 내 성심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너희 평화를 안전하게 하여라.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 회개에 이르는 길이다. 각 영혼은 세상의 마음의 일부다. 각 영혼은 그가 시시각각 내리는 선택으로 세상의 미래를 결정한다.”

“파티마에서 교회의 승인이 쉽게 오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에 방해물이었다. 내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꺼려했던 결과로서 내가 막아서 못 하게 하려고 왔었던 전쟁에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 나는 너희가 지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는 너희가 이번에도 귀를 기울이기에 주저함은 너희가 지상에서 겪어 왔던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가 일어날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생명에 대한 사랑.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



www.RosaryOfTheUnborn.com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주문: 전화 440-327-4532; 온라인
주문 태아를 위한 큰목주 - \$29.95, 태아를 위한 짧은 목주 - \$14.95

거룩한 목주 기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는 작은 결정이 큰 결정이 되고, 큰 결정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괴로운 시대다. 오늘 나는 너희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너희에게 왔다. 나는 너희 기도의 힘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마음으로부터 바쳐지는 성모송 하나는 영혼을 회개시키고, 전쟁을 멈추게 하거나 마음속에 숨겨진 사악한 계획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기도가 전 세계에서 그 순간에 암송되는 모든 기도와 합쳐질 때 하나의 기도는 무한한 힘을 지닌다. 그렇다면 목주기도(5단)의 힘을 생각해 보아라. 하루 종일 간청하는 많은 목주기도들의 영향을 깊이 생각하여라. 사탄이 너희의 기도 활동을 단념시키게 하지 마라. 오늘, 목주기도의 은혜를 기념하여라.”

“오늘 나는 특히 하나 된 기도로 세상을 끌어들이기 위해 왔다. 이 하나 된 기도는 악을 폭로하고 뒤집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저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바치고 있는 모든 기도에 결합하나이다.’ 라고 암송하여라. 나는 이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가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 반대하여 장벽으로서 사용한다.”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위험을 감정·선정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거슬러 청원하는 기도 활동에서 너희를 일치시키기 위해 온다. 같은 이유로 성부의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다. 여기에서의 그분의 이 노력은 유례가 없다.”

“아버지 하느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위해 여기에 오라는 나의 부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있음에 따라 너희는 너희 삶과 너희 마음과 너희 자신의 가정에 변화를 찾을 것이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태아 목주를 쥐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공적은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하느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



심방들에 대한 스페인어 강연 - 아퀴나스 교육 센터



기도모임 예식에 도착하는 시현자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과 남편 단 (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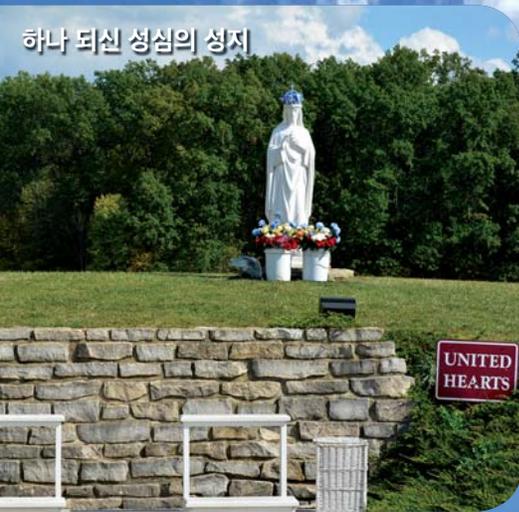


행렬



하나 되신 성심의 별

도의 축제일 - 2017년 10월 7일



아버지 하느님의 성부로서의 은총

2017년 8월 6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선악에 대한 분별의 은사를 수반하는 성부로서의 나의 은총을 너희에게 내린다. 따라서 그것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2017년 8월 7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어제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내렸던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나의 은총에 대해 묻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은총이다. 사람은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은총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은총이 내릴 때 사람 몸에 지니거나 사람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은총을 받는다. 이 은총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악을 분리하는 분별의 한 도구다. 그것은 영혼을 나의 성부 성심으로 더 깊이 끌어당긴다. 이 은총은 자주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2017년 8월 18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지에서 나는 진리가 마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 여기에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성지에서 진실한 평화를 찾아낸다. 나의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 여기 성지의 공기에 퍼지는 진리를 증강한다. 영혼들이 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은 더 쉽게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인지할 것이다. 만약 영혼들이 이 은총에 협조한다면 미래는 영혼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상을 위해서 변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최상의 경우를 희망하는 자애 어린 하느님 아버지로서 이 은총을 베푼다.” ■

2017년 8월 2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마음들을 위한 것이며 스스로 죄를 자각하는 은총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건과 소유물, 등등 모든 것이 아버지의 현존 안에 있었다는 은총을 입을 것이다.” ■

2017년 8월 23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부로서의 은총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축복이다. 이 축복에서는 두 가지 다른 감정·정서가 있다. 주어진 주된 은총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여될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둘째 은총은 사람들이 지니는 모든 물건과 옷, 가공품에 놓여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들은 나의 현존을 그것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들은 치유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축복이나 은총의 어느 것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는 물체에서 물체로 넘겨줄 수 없다. 이 축복은 보통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뿐이다.” ■

2017년 8월 24일 모린이 여쭙습니다. “아빠 하느님, 하느님께서 어제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10월 7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 축복을 베풀 수 있으신지요? 그것 또한 하나 되신 성심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원을 승락하고 싶지만, 그 채플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채플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할 것이다.”

“별판 성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해 두자. 영원토록 나는 나의 성부로서의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베풀고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나의 자녀들을 나에게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

2017년 10월 8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 모인 군중에* 매우 만족하였다. 많은 호의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 축복받은 모든 물품은 어디로 가져가도 나의 현존을 함께 할 것이다. 그 물건들을 소중히 하여라.” ■

* 만 명 이상이 참석했음.



2017년 8월 6일에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서 찍은 태양의 빛 사진

제22편 - 영적 여정

하나 된 사랑: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서 완덕 (제2부)



모든 영혼이 하나 된 사랑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부르심의 “충만함” (그분께서 부르시는 것처럼)을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2008년 4월 2일에 주신 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름은 거룩한 사랑의 **첫째 심방** 즉, 내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 안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이 **심방**에서 영혼이 정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일치하도록 부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일치하려는 영혼의 노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하는 그의 여정이 빠르다.”

“영혼의 자유의지는 사탄이 이 **하나 된 사랑**을 단념시키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장애물이다.”

이 메시지에 기준하여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서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된 사랑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4월 3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완전한 하나 된 사랑**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들인 **넷째와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심방**들이다. 기본적인 **하나 된 사랑**은 개인 성화의 토대이며, 우선적으로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격려하는 사랑이다.” “기본적인 **하나 된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욕망이 없으면 따라서 **거룩한 사랑**의 토대도 없어진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더 그는 일치를 원한다.”

세상이 하나 된 사랑의 신비적 본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위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또한 2008년 4월 3일에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된 사랑**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비록 신비적 일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매우 실질적인 신비로운 은사일지라도 **하나 된 사랑**의 본질은 영혼을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가장 큰 죄인조차도 누우치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추구하면서 하나 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된 사랑**은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들어가라는, 곧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 된 사랑**은 회개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은 활동하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곧이어 하나 된 사랑으로 알려진 이 신비를 더 한층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기위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그 다음 날 2008년 4월 4일에도 오시고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아름다운 꽃다발이라면 **하나 된 사랑**은 그 꽃들이 피도록 촉진하는 태양과 비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만족과 성화로 가는 문의 열쇠라면, **하나 된 사랑**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이신 이 사랑은 영혼을 더 깊이, 훨씬 더 깊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는 동기 및 자극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된 사랑**과 하나이시고, **신성한 사랑**과 하나이시고, **거룩한 사랑**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일치하도록 부르는 것은 **하나 된 사랑**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주신 유사한 설명에서 우리는 같은 날, 2008년 4월 4일에 주신 둘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가 하나인 것 처럼,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된 사랑**도 하나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둘, 즉 하나 된 사랑과 내 아버지의 뜻은 각 심방마다 다 존재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의 심방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 된 사랑**의 가장 깊은 상태, 곧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잠김은 여섯째 심방**에 놓여 있다.

오늘날에는 **2008년 4월 5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랑**의 이 메시지들은 “... 나는 세상에 따라야 할 길과 개인의 거룩함과 심지어 성화의 진귀한 목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쓸모 없고 불필요한 것처럼 냉정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 나라에서는 법률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통과되어 왔다. 내 이름이 소수를 불쾌하게 한다면, 이 같은 소수 또한 기도를 대체해 온 폭력 행위와 도덕상의 범죄에 의해 불쾌하게 되지 않겠느냐? 올바른 이유는 버려지고 부적절한 동정심이 놓여져 왔다.”

“오늘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능이다.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따르는 진리는 **거룩한, 신성한** 그리고 **하나 된 사랑**이다.”

물론 이 무능은 **거룩한, 신성한,** 그리고 **하나 된 사랑**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치하고 있는 세상의 마음에 주된 장애물입니다. **2008년 4월 5일**에 주신 이 같은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왜 (진리인) **하나 된 사랑**이 세상의 마음이 받아들이고 달성하기에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둠의 왕자 **·마왕**으로부터 온다.”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너희를 계속 회개로 부르는 동안 사탄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일에 관한

염려에 의해서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여정을 혼란시킨다. 그 자신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인류의 주의 산만은 이제 교회 자체내에 존재하는 배교로,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남은 자들은 신앙의 전통에 따라 진실한 것과, 인간의 오류로 인해 조작된 것을 분간하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남은 자들은 언제나 진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기초를 둘 때 그것을 분간할 것이다. 단순한 권력이나 직위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내 진리를 추구하여라.”
“내 양떼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제게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절제를,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신중을, 진리를 알아보기 위한 지혜를 주소서. 아멘.”

2008년 7월 15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탄이 영혼들을 거룩한, 신성한, 그리고 **하나 된 사랑**의 진리 안에서의 삶으로부터, 따라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진척에서 다른 길로 끌어들이는 혼란의 일부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 남은 신자들에게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영혼이 심방들을 통한 그의 여정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걱정과 용서하지 못함을 잊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넷째 심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영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 곧 **다섯째 심방**에 달한다면, 그는 걱정과 용서하지 못함 양쪽 모두 혹은 어느 한쪽에 굴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 신뢰로서 들어오시는 성부의 뜻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뜻에 잠김인 **여섯째 심방**에서 영혼은 신뢰의 부족으로 생기는 어떤 나쁜 열매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영혼 안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 부족도 즉시 영혼의 자유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서 분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나 불화인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의 신뢰 부족이 하느님의 뜻에서 영혼을 이 분리로 인도하는지에 대해 금요 묵주기도 모임에서 **2008년 5월 2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랑과 자비와 신뢰는 영혼을 내 신성한 예수 성심에 묶는 금줄처럼 얽어 짜여진다. 이 중의 하나가 대립될 때, 다른 것들 또한 풀려진다. 그 영혼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불안·걱정과 두려움은 내 부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신뢰 부족의 특징은 두려움, 불안, 근심, 그리고 평화의 상실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때, 너희는 훨씬 더 단단히 내 신성한 성심에 매달리고 내가 너희를 돕게 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혼의 여정의 모든 견지에서와 같이 **거룩한 사랑, 신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 된 사랑** 안에서 영혼의 삶의 향상에 이르는 열쇠는 하느님의 뜻에 영혼의 자유의지를 점차적으로 더 깊이 신뢰하는 내말입니다. **2008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의 11주년 기념일**에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에 보내는 다달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영원하신 현재의 섭리를 통하여 인류는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이 타협되고 뒤엎히고 있다. (과학) 기술은 사악한 목적, 곧 생명과 심지어 자연 자체까지 파괴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사탄이 성령의 은사를 가장하고 교만으로 이런 거짓 선물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천상이 개입할 때, 이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바로 그 사람들이 맹렬히 그것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나는 또다시 진리를 해명하기 위해 왔다. 마음속에 키워진 거룩한 사랑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잘못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미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의 계명들의 영성이 이 안에 있으며, 이 사랑의 계명들은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구체화 되었다. 이 선교사업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전달자이고 내 재림의 전조·징조이기 때문에 사탄은 전혀 예상 밖의 출처로부터 논쟁의 파괴적인 요인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의 구원의 길이고, 신성한 사랑은 개인의 거룩함의 길이며, **하나 된 사랑**은 너희 성화의 길이다.

(이 **영적 여정**의 시리즈를 통해 실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영성과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영혼의 여정에 관하여 배워 온 모든 것에서, 인류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위한 궁극의 목표는 서로간에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과 일치하려고 노력하였고, 노력하고, 언제나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문의 일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007년 2월 23일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시현자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셨던 메시에서 그분 자신께서 이것이 그분의 욕망이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저는 (모린) 거대한 불꽃이 감실 주위에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불꽃이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감실에 항상 현존하는 내 아들 예수를 찬미하자. 내 아이야, 각 모래알마다 다 형성되고, 각 물방울마다 다 바다로 들어가고 그리고 햇살의 각 줄기마다 다 너희의 낮을 밝아 오게 하는 것은 내 신성한 뜻을 통하여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해변가의 파도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하늘에서 모든 구름의 형성과 그것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분은 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순간의 경과에서 내가 창조하지 않고 너희에게 주는 현 순간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내가 각 순간을 너희에게 줄 때, 나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상황과 십자가와 은총을 계획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너희는 인류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신성한 뜻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해 이야기가 많은 것에 반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 된 성심의 계시를 세상에 주었다.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은 나의 신성한 뜻과 나의 성심의 불꽃으로 들어가는 단계별 여정이다. 너희는 사닥다리를 기어오르지 않고 땅에서 사닥다리 꼭대기에 뛰어오를 수는 없다. 너희는 영적 여정을 먼저 따르지 않고 거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신성한 뜻으로 뛰어들어갈 수는 없다. 오늘날 목적에 관하여 너무 많은 말들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충분한 말들이 없다. **“하나 된 성심**을 통한 영적 여정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 여정에 대한 이 논의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의 욕망은 하느님의 왕국과 하느님의 뜻이 꼭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인류와의 일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과 지상에서 모든 인류의 이 일치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이 **거룩한 사랑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2011년 4월 7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일치 안에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가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왔다. 악의 세력이 단합할 때, 선은 약해진다. 사탄은 착한 백성, 곧 착한 민족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자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다.”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로서,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이 일치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왔다. 그 방법이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랑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믿음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악에 맞서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일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라!”

“또다시 이 세상에는 악이 악과 서로 제휴를 하고 있다. 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며, 이제 막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한 사악한 안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너희는 올바른 대의명분을 지닌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낙태가 많은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을 죽여왔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일치하고 거룩한 사랑을 옹호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랑이 너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지금은 간계나 속임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야 할 때다. 너희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악의 편을 드는 것이다.”

“지금은 한 발현이 다른 발현에 맞서거나 거짓 분별이 진리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다.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리를 더럽히지 마라. 진리는 너희의 무기다. 진리는 너희의 승리다. 이 진리를 너희 가슴에 품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여라.

진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나의 신성한 뜻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에 대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연속 논문의 결말을 내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인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사랑인 완덕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완덕은 오직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지나는 개인의 거룩함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각 모두 예수님께서 2017년 5월 3일에 주셨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은 거룩한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은 너희를 하느님의 뜻에 더 친밀하게 일치시킨다.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거룩한 사랑의 완덕에 이르는 길이며 하느님의 뜻과 일치를 위한 도로 지도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을 떠나서는 내 아버지의 뜻과 일치에 달하지 못한다.” ■

(시리즈 완결판)

Christmas at Maranatha

카일 가정으로부터 -

우리는 축제일 동안에 여러분의 관대, 곧 정성 어린 모든 미사 신청, 기도,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단과 모린, 그리고 애니



아퀴나스 센터 카페테리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아퀴나스 환영 센터